

## I. 시험준비 계기

안녕하세요 저는 제31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정O연입니다.  
저는 2001년생으로 2024년 2월 대학을 졸업하면서 공무원과 법무사 중 고민을 하다 정년이 없다는 점, 자유로운 업무환경, 능력에 따라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II. 수험기간 (약 1년 8개월)

- 2024년 3월 ~ 2024년 8월 ; 1차시험 불합격
- 2024년 9월 ~ 2025년 11월 ; 1,2차 시험 합격

2024년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비법대생이고 대학을 다니면서 법 과목을 들어본 적도 없는 터라 법률 지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해 30회 1차 시험에서 55점을 받고 불합격하였습니다. 비록 불합격하였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에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부모님과 상의 후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학원에서 2차수업을 들었고, 1차는 6개월 동안 기본강의는 모두 수강하였기 때문에 따로 강의는 듣지 않고 기출해설 강의만 필요에 따라 수강하였습니다.

## III. 1차시험

과목명	헌법,상법	민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	민사집행,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	부동산등기법,공탁법
점수	84	74	60	74

평균	73
합격선	64.5
합격여부	합격

확인 >

1차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모의고사, 최신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30회 시험은 기본강의만 수강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았고, 31회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따로 기본강의나 심화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30회 시험을 본 후 한달 가량 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놀랍게도 6개월간 한 공부가 머리에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 전 과목을 한번씩 쭉 읽었습니다. 그 후 바로 객관식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2번 정도 회독하였습니다.

### i) 기출문제

기출문제집을 2번 회독한 후, 실제 기출을 인쇄하여 풀었습니다. 대법원시험정보에 들어가면 1차 객관식 문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뽑아 전부 풀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5년치만 뽑아서 풀어도 충분할듯합니다).

#### \*기출회독 방법\*

1.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풀기 (마킹시간 고려해서 15분 빼고 시간 재기)
2. 채점 후 확실히 아는 것, 헷갈리는 것, 아예 모르는 것 구분하기 (확실히 아는 것은 제외하고 헷갈리는 것, 아예 모르는 것 외우기)
3. 10년치 기출을 풀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복된 지문 지우기
4. 마지막 정리로 헷갈리는 것 위주로 회독하기

저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이용하여 단권화하였습니다.

### ii) 모의고사

박문각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전부 응시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진행되고 많은 수험생들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이 주는 긴장감을 다루는 법도 연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수험생분들은 꼭 모의고사를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2차도 같이 준비하였기 때문에 시간상 모의고사를 전부 오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문제를 보면서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거나 몰랐던 내용을 체크하는 용도로 이용하였습니다. 다만 강사님들께서 최신판례를 모의고사에 문제로 녹여 출제하시는데, 이건 정말 유용했습니다. 최신판례를 그

냥 읽는 것보다는 강사님들께서 문제화하여 풀고 이것으로 외우면 더 개념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 iii) 최신판례

요즘은 최신판례의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민법, 상법, 헌법, 부등법 위주로 최신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각 수업마다 정리하여 나눠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수업을 듣지 않아 1차시험을 2주 정도 남겨 두고 최신판례를 여러번 읽어보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IV. 2차시험

과목명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점수	52.5	25	35.5	47.5	12.75	33.5	22.5

평균	57.3125
합격선	50
합격여부	합격

- 민법, 민소법 ; 이혁준 교수님
- 형법 ; 이재영 교수님
- 형소법 ; 김영환 교수님
- 민사서류작성 ; 이천교 교수님
- 부등법, 등기신청 ; 김미영 교수님

저는 1차와 병행하였기 때문에 2차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그날 한 수업을 그날 복습하는 것으로 스스로와 약속하였습니다.

예비순환과 1순환 때는 기본서로 복습하면서 개념을 다지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복습하면서 암기도 같이 하라고 하셨지만 앞서 말했듯 저는 1차공부도 병행하느라 1순환 때까지는 복습을 하는 것에 그쳤고 암기까지는 하

지 못했습니다. 2차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1순환 때 암기도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암기를 안하면 2순환, 3순환 때 너무 힘들어집니다...

2순환 때는 매일 모의고사를 봅니다. 1차시험도 점점 다가왔기 때문에 예습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날 본 모의고사를 외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그날 본 모의고사만 제대로 외우자!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3순환 때는 1차가 끝나고 2차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3순환 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3순환까지 왔다는 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다 외우고 머리에 넣으려 하지 마시고 교수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한 판례를 중심으로 외워야합니다. 특히 형소법의 경우 저는 2순환을 아예 듣지 못했습니다. 1차가 얼마 남지 않아 1차에만 집중하느라 2순환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3순환 때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김영환 교수님의 변사기로 공부하였는데 이때 그동안 수업 중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한 a급 판례와 모의고사 문제만 따로 체크하여 그것만 계속 외웠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교수님이 내신 모의고사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와 형소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등법의 경우 김미영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가장 좋았던 점은 수업시간에 조문을 많이 보게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해설이 간단합니다. 덕분에 부등법에서 암기량은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2,3순환에 매일 모의고사를 본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로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이건 내 시험점수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점수에 신경쓰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점수보다는 내가 매일 모의고사를 본다는 것에 의의를 두셨으면 합니다.

## V. 마치며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막연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을 준비하면서 매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가 공부하고 바쁘게 살다보니 어느덧 시험날이 되고 시험이 어찌어찌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끝은 있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 분명 여러분도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저의 합격수기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